

2020년 10월 1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1편 12~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12~13절)

◎ 찬 송 / 382장(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11 - 구원의 갑주로서의 투구

다섯 번째 갑주인 투구는 구원을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만나는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투구는 머리 혹은 뇌를 보호합니다. 뇌는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진정한 생명이 계속되도록 하는 인식기관입니다. 현대 의학이 규명하는 죽음은 심장이 멎는 것이지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설령 법적으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혼의 생명, 곧 새 생명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은 영혼의 머리와 뇌가 명석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머리와 뇌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이 깨어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잃지 않게 합니다. 구원은 투구와 같이 영적인 의미의 머리와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정신이 끝까지 보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투구와 같이 악한 자와의 전투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는 의의 호심경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듯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갑주인 믿음의 방패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방패가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듯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이것은 구

원은 결코 어떠한 공격과 일들에서도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의와 믿음을 다루면서 구원의 교리도 간단하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개혁주의의 구원론에 의하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집어 들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 나서는 성도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성도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분명 구원의 투구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또 성화의 구원도 영적인 투구가 이를 보전하여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영적인 전투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로 구성되며, 후자인 성화는 끝까지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 번에 얻은 칭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성화의 구원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중단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속성을 머리와 뇌를 보호하는 투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도록 지킵니다. 이는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에게 십계명의 제일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제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이 손상되지 않는 근원은 성도가 하나님을 머리 삼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가 보호되는 것은 정신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뇌종양 전문의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지 여부는 심방의 박동 여부에 직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뇌사 상태의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의 생명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지속성 여부는 심장에 의해서 판단되지만,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곧 존엄성은 뇌의 작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새 생명, 곧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어도 영혼에 관련된 문제나 영원한 것에 대한 일에는 뇌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깁니다. 정신이 깨어 있다는 것은 새롭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신시켜주며,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지 않고 “집어 들라”,

“가지라” 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 앞의 네 가지 갑주처럼 분사를 사용하여 “서다.” 를 지원하도록 하지 않고, 갑자기 명령형 동사로 전환하여 설명했을 까요? 전신 갑주 여섯 개 중 분명한 공격무기는 검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를 “집어 들라” 고 하면서 투구와 검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투구를 검과 같은 공격 무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투구를 집어 드는 이미지는 실제로 적과 몸과 몸을 부딪치는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신 갑주가 보여 주는 이미지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서다” 와 “집어들다.” 입니다. 후자가 더욱 긴박한 움직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서서 지키고 있는 군장이 아니라, 집어 들고 치열한 전장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군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단순히 앞으로 사용할 특권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매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한주간도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중에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며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성도는 더욱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병이요, 거룩한 자녀로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이요, 그 구원은 결코 변치 않음을 알고 담대히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90장(통444) 예수가 거느리시니

◎ 폐 회 / 주기도문